

古文獻을 통해 본 朝鮮時代 名將

전 호 수*

1. 머리말
2. 관련자료 소개와 수록 인물 비교
3. 수록 빈도와 관련 전쟁·전투 분석
4. 맺음말

1. 머리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名將 또는 전쟁 영웅은 역사서술에서 주요 주제의 하나였다. 굳이 『三國志』¹⁾의 영웅들이나 『플르타크영웅전』 등을 거명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존경해마지 않은 역사 인물의 상당수는 武士的 英雄들이다. 역사는 위기의 경험과 극복을 통해 보다 시야를 확대하고 깊이를 더해왔음을 역사서술 자체로 증명해온 셈이라고 하겠다.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문관

1) 『삼국지』에는 陳壽(233~297)가 편찬한 중국 魏·蜀·吳 3국의 正史로서 ‘삼국지’와 『삼국지』에 대한 일종의 역사소설로서 元末明初 나관중 저술의 『三國志通俗演義』가 있는데, 보통 『삼국지』 하면 후자를 일컫는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역대의 명장 또는 전쟁 영웅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²⁾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위기와 그로 인한 불안감을 전쟁 영웅들이 보여준 ‘위기극복의 리더십’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하는 시대의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 또한 최근에 명장 뿐만이 아니라 군사전략가·군사과학기술자 등을 포괄하는 조선시대의 군사인물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개관해 본 바 있다.³⁾ 이 글은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고심했던 사항의 하나인 ‘인물 선정의 객관성·보편성 확보 문제’⁴⁾와 관련하여 古文獻, 곧 역대의 名將傳을 통해 해답의 실마리를 얻고자 하는 발상에서 준비된 논고이다. 즉, 역대의 통사적 명장전을 상호 비교하여 수록 인물의 공통성 검출을 통해 오늘날 명장 선정의 객관적 근거 자료로 삼아보고자 한 것이다.⁵⁾

2)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이순신장군의 일대기를 다룬 김훈의 역사소설 ‘칼의 노래’(2003)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뒤이어 방영된 KBS1TV의 역사드라마 ‘불멸의 이순신’(2004.9.24~2005.8.28 방영)을 통해 더욱 고조되었다. 그리고 2014년 ‘세월호참사’ 이후에 방영된 명랑대첩을 소재로 다룬 영화 ‘명랑’이 폭발적 성공을 거두면서 ‘이순신 신드롬’으로 이어졌다. 이렇듯 ‘충무공 이순신’을 비롯하여 전란이나 위기를 극복해간 인물들에 대한 역사소설 및 TV·영화 등의 상업적 성공과 대중적 관심을 학문적으로 수렴하기 노력은 때마침 교양교육에서 영상을 활용한 교육의 활성화와 함께 ‘영상역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분야의 제창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를 일부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김기덕, 「정보화시대의 역사학: ‘영상역사학’을 제창한다」, 『역사교육』 75, 2000, 역사교육연구회.

② 류주희, 「역사학에서 바라본 역사드라마」, 『중앙사론』 17, 2003, 한국중앙사학회.

③ 김민정, 「영화의 역사서술과 역사교육의 가능성」, 『역사교육』 94, 2005, 역사교육연구회.

④ 연동원, 「소설과 영화를 통한 교양 역사교육 연구」, 『교양교육연구』 5-1, 2011, 한국교양교육학회.

3) 전호수, 『한국군사인물연구 - 조선편 I -』, 20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호수, 『한국군사인물연구 - 조선편 II -』, 201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 전쟁기념관이 2012년 6월에 개최한 ‘전쟁기념관의 호국인물 선정과 운영에 대한 종합적 고찰’도 현행 호국인물 선정의 난맥상에 대한 고민의 산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학술회에도 현행의 난맥상을 돌파할만한 새로운 논의라든가, ‘고문헌’을 활용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방법론이 제시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그 해답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수많은 명장이나 전쟁 영웅을 개별적으로 다룬 전기물이나 역사서술은 적지 않았지만, 이들을 통합하여 서술한 명장전이나 인물지는 잘 알려진 洪良浩의 『海東名將傳』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우선 관련 자료 발굴부터 시작했다. 그 결과 『해동명장전』과 대체로 동일한 서술 방식의 『海東名臣錄』을 비롯하여, 비록 명장전은 아니더라도 ‘名將錄’ 또는 ‘名將攷’ 등의 항목을 통해 인물 명단을 통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몇 가지 고문헌, 즉 ‘명장(인물)록’을 발굴할 수 있었다.

명장(인물)전으로는 潛谷 金堉이 저술한 『해동명신록』의 ‘제9권’, 그리고 명장(인물)록으로는 『大東掌攷』의 ‘名將攷’, 『文獻便考』의 ‘海東名將錄’, 『典故大方』의 ‘名將錄’ 등이 그것이다.⁶⁾ 물론 이들 문헌은 대부분 그 존재 자체는 이미 확인되었거나 일부는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 자료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은 『대동장고』 외에는 아직 시도되고 있지 않다. 나머지 자료들은 대체로 기초적인 해제 수준의 소개나 일부 항목이 부분적으로 활용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각각의 자료를 편찬시기 순으로 기초적인 해제를 포함하여 수록 인물의 구성·편차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그 논의 방식은 일률적인 틀을 적용하기보다는 편찬

5) 역대의 명장에 대한 관심은 그 특성상 軍을 중심으로 시작된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왕의 軍 관련 명장전 간행물로는 다음의 자료가 참고된다.

- ① 국방부 정훈국, 『韓國歷代名將傳』, 1955, 국방부.
- ② 해군본부 정훈감실, 『水軍名將傳』, 1962, 해군본부.
- ③ 해군본부 정훈감실, 『海戰名將傳』, 1976, 해군본부.
- ④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한국의 명장』, 1978, 육군본부.

6) 명장(인물)전과 명장(인물)록의 구분은 개별 인물의 전기를 모아놓은 경우에는 ‘명장(인물)전’, 단지 인물 명단만을 수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장(인물)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동명장전』과 『해동명신록』은 ‘명장전’에 해당하고, 『대동장고』·『문헌편고』·『전고대방』은 ‘명장록’에 해당한다.

시기가 가장 앞서는 『해동명신록』에서는 수록 인물의 활약상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두 번째로 앞서 편찬된 『해동명장전』에서부터 수록 인물을 상호 비교하여 인물 구성의 공통성 및 수록 편차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다섯 문헌의 저술시기가 조선후기 또는 그 연장선상에 해당하므로 시기별 편차뿐만이 아니라 黨色 및 학문성향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자 한다. 다만, 그 논의는 본고의 목적상 각종 고문헌에 수록된 명장 구성의 공통성 여부를 비교 검토해 보는 정도에서 그치고자 한다. 직접적으로는 먼저 편저자·권수 구성·인물 구성 등에 대해 총괄표를 작성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해 보고, 뒤이어 편찬시기 순으로 각각의 자료 소개 및 인물 구성상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위의 다섯 종류 문헌에 등재된 개별 인물의 수록 빈도, 즉 수록문헌수에 따른 인물 구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戰功·軍功의 大小 및 관련 전쟁·전투의 규모 등에 따른 인물 선정의 공통성·객관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인물 구성의 시대별·당색별 편차에 대해서도 재차 확인하고자 한다. 직접적으로는 먼저 수록 인물 전체를 총괄하는 종합 대비표를 작성해 제시한 다음, 개별 인물의 수록 빈도에 따른 시대별·당색별 편차라든가 戰功·軍功의 大小 및 관련 전쟁·전투의 규모 등과 상관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결론적 측면에서 위의 다섯 종류의 고문헌 분석을 통한 조선시대 명장 선정의 객관적 근거 자료의 확보 가능성과 그 한계성 또는 시사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활용하고 있는 역사적 방법론의 대상인 위 5종의 문헌 또한 시대의 산물인 역사적 자료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 검토를 통해 역대의 명장 또는 전쟁 영웅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는 한편, 오늘날에

요구되는 명장 또는 군사인물 연구의 과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⁷⁾

2. 관련자료 소개와 수록 인물 비교

현전하는 고문헌 중에서 그 자체로 명장전이거나 ‘명장’을 하나의 항목으로 설정하여 다루고 있는 인물지는 앞서 소개한 다섯 종류의 문헌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해동명장전』은 이미 언급한대로 학계나 대중적으로도 모두 잘 알려져 있는 자료이다. 『해동명신록』과 『전고대방』은 일정하게 활용되고 있는 자료이지만, 두 자료에서 모두 ‘명장’ 또는 ‘무장’ 항목을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해동명신록』의 경우 조선시대 명망가들의 인물전이라는 이해 외에 ‘제9권’에서 ‘武將’ 항목을 따로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지적되었지만,⁸⁾ 이를 주목한 논의는 아직 없는 듯하다. 『전고대방』은 이 책이 처음 간행된 1924년에 이미 대중적 관심이 희박해져가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었다. 다만, 이후로도 지속적 간행이 이루어졌으나,⁹⁾ 주로 보학적 측면의 교양적 관점 외에는 별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 『대동장고』나 『문헌편고』는 이제 조명을 받기 시작하거나

7) 조선시대 군사사 연구의 분야별 연구현황에 대해서는 ‘吳宗祿, 1998, 「朝鮮前期 軍事史 研究의 現況과 課題」, 『軍史』 36, 국방군사연구소가 참조된다.

8) 洪淳鉉, 「해설」, 『金堉·海東名臣錄』, 750쪽, 1977, 동화출판공사.

9) 이미 1936년에 제9권을 찍을 정도로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고, 해방 이후에도 세창서관(1961·1962), 아세아문화사(1975), 명문당(1977·1982·1987), 이회문화사(1992) 등에 의해 지속적인 간행이 이루어졌지만, 보학적 측면의 활용 외에는 학계에 미친 영향은 별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상 그 존재 자체가 잊혀진 자료에 해당한다. 『대동장고』는 최근에 그 문헌적 가치가 새롭게 발굴되기 시작한 자료이지만, 아직 그 관심은 편찬자의 인물 및 문학 등 부분적인 측면에 그치고 있다. 끝으로 『문헌편고』는 필자가 이번 논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발굴한 자료에 해당한다.¹⁰⁾

먼저 이들 5종의 자료에 대해 편찬시기 순으로 편찬자·편찬시기·편수구성 등의 기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편찬시기 순으로 그 대비표를 제시해 보면, 아래의 표①과 같다.

【표① 명장전 또는 명장록 고문헌 대비표】

문헌 명칭	항목 구분	편저자	편찬시기	권수구성	인물구성
해동명신록		김육	1651년(효종 2)	9권9책	29명
해동명장전		홍양호	1794년(정조 16)	6권3책	24명
대동장고		홍경모	1821년(순조 21)경	13책(13권)	21명
문헌편고		이장훈	1923년	1책	19명
전고대방		강효석	1924년	4권1책	18명

편찬시기 순으로는 김육이 편찬한 『역대명신록』이 효종 2년(1651)으로 가장 앞서고, 다음이 『해동명장전』으로 정조 16년(1794)에 저술되었다. 약 30년 뒤인 순조 21년(1821)경에 『대동장고』가 편찬되는데, 편저자인 홍경모는 『해동명장전』을 저술한 홍양호의 손자이다. 이외에 『문헌편고』와 『전고대방』은 각각 1923년과 1924년에 간행된 저작물이다. 비록 시기상으로는 현대적 간행물에 해당되지만, 그 체제 및 내용은 조선후기에 간행된 각종 인물전의 항목 설정과 동일하므로 실질적으로는 고문헌에 해당된다.

특히, 후술하겠지만 『전고대방』의 실질적인 편찬 시기는 1910년

10) 국립중앙도서관, 청구기호 2513-25.

대로서¹¹⁾ 1924년에 현대적 활자본으로 간행될 당시에는 이미 퇴조 단계에 접어들고 있던 자료였다. 각각 당시 언론출판인으로 활동하였던 李章薰과 姜敷錫에 의해 간행되었다. 특히, 강효석은 『전고대방』보다 상대적으로 잘 알려진 『大東奇聞』과 『東國戰亂史』의 편찬자이기도 하다.

수록 인물은 『해동명신록』이 29(25)명,¹²⁾ 『해동명장전』이 24명, 『대동장고』가 21(22)명,¹³⁾ 『문헌편고』가 19명, 『전고대방』이 18명으로 후대로 내려올수록 인원이 축소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편찬시기 순으로 기초적인 문헌 해제와 더불어 위 다섯 문헌의 명장 선정 관련 기본 사항 및 수록 인물의 편차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① 『海東名臣錄』

『해동명신록』은 앞서 언급한대로 조선후기 인조·효종대의 名臣으로 특히 효종 때에 大同法을 추진하며 名宰相으로 활약한 潛谷 金堉(1580~1658)이 저술한 인물지이다. 수록 인물은 신라시대의 설총·최치원 등 2명, 고려시대의 최충·안유·정몽주 등 3명을 포함해, 조선시대 인물로는 高麗守節臣의 대표 인물인 吉再(권1) 및

11) 『전고대방』은 본래 강효석의 부친인 ‘梧隱公’이 편찬해놓은 원본을 강효석이가 정리하여 간행한 것이다(강효석 및 高應韓의 ‘발문’ 참조). 그에따라 원본의 편찬 시기를 추정해보면 ‘相臣錄’에 마지막으로 수록된 인물인 ‘趙秉鎬’가 文獻이라는 시호를 받은(『순종실록』, 3년(1910) 4월 14일) 1910년을 하한으로 설정할 수 있다.

12) 『해동명신록』의 제9권에서 수록하고 있는 무장의 인물 구성은 ‘최윤덕’ 등 25명이다. 그러나 『해동명신록』이 본격적인 명장전을 표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제3~8권에 수록하고 있는 인물 중에서 위 4종의 문헌에서 한 번 이상 선정된 인물 4명을 추가로 산정하여(‘표② 고문헌 수록 명장 선정 총괄 대비표’ 참조) 29명으로 재구성하였다. 그 4명은 ‘허중·김여물·권율·이정암’이다.

13) 『대동장고』의 원전에는 조선편 다섯 번째에 ‘金慶孫’을 수록하고 있어서, 원전대로라면 22명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는 고려편 열두 번째에 수록하고 있는 ‘김경손’과 동일 인물에 대한 오기라고 판단되어 숫자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개국공신·좌정승으로 활약한 沈德符(권3)로부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활약한 崔震立에 이르기까지 296명 등 총 301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를테면 유학적 측면에서 그 연원을 밝히는 한편 조선시대 유학자이자 관료로서 뛰어난 행적을 보여준 인물들은 시대순으로 배열하고 약전을 기술한 인물전이다.¹⁴⁾

편찬자인 김육은 인조·효종대에 重臣 및 大臣으로 활약하면서 대동법을 비롯하여 동전의 유통, 활자의 보급 등을 평생의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즉, 北伐政策의 추진에 앞서 민생의 안정을 도모했던 대표적인 실무정책형 고위 관료였다.¹⁵⁾ 또한 본래 문과에 장원한 재원으로서 정언·문학·지평·승지 등의 청요직을 거쳐 대사간·대사성 등을 역임하고, 『선조실록』의 改修를 책임진 실록청 총재관으로 활약한 당대의 석학이었다.

이렇듯 김육은 최고위 정책관료이자 당대의 석학으로서 다양한 저술을 남겼다. 역대의 저술 중 최초의 백과사전으로 평가되고 있는 『類苑叢寶』를 비롯하여, 『救荒撮要』·『辟瘟方』·『種德新編』 등의 安民方策적 저술, 그리고 『皇明紀略』·『朝天日記』 등 외교 활동과 관련된 저술 등 관료생활 중에도 활발한 저술활동을 전개하였다. 『해동명신록』은 연보에 따르면 1751년(효종 2) 그가 영의정에 임명되는 해부터 편찬하기 시작했는데, 이 해에 종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

『해동명신록』은 모두 9권9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본적으로 시대순으로 인물을 수록하고 있는 듯하지만, 단지 시대순으로만 목차를 구성하고 있지는 않다. 즉, 제3~8권에서는 조선시대의

14) 『해동명신록』은 대체로 동일한 구성을 보이는 7권7책의 異本도 있다. 본고에서는 1914년 朝鮮古書刊行會에서 재간한 9권9책의 판본에 의거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15) 김육의 생애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로는 다음의 글을 참조된다.

① 洪淳鉉, 「해설」, 『金堉·海東名臣錄』, 739~753쪽, 1977, 동화출판공사.

② 이익성 편역, 『金堉』(실학사상독본②), 1992, 한길사.

인물을 시대순으로 수록하고 있지만, 제1~2권 및 제9권에서는 분명히 의식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항목 설정이 파악된다. 다음아니라 제1~2권에서는 학행과 덕행으로 정평이 나있던 인물, 다시 말하면 儒賢 내지 名賢에 해당할 수 있는 인물들을 수록하고 있다. 제9권에서도 특정 영역의 인물들을 수록하고 있는데, 조선의 개국 이후부터 인조대에 이르는 宗室과 武將에 해당하는 인물들로 구성하고 있다. 종실, 즉 왕족의 경우는 세종의 손자인 永順君 등 12명, 무장은 崔潤德 이하 25명을 수록하고 있다.

무장에 해당하는 25명¹⁶⁾의 면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崔閔德·李從茂·李從生·魚有沼·俞應孚·李德良·朴元宗·張彦良·禹孟善·申翬·邊協·李舜臣·元豪·郭再祐·劉克良·黃進·金德齡·金應河·柳珩·李曙·申景禎·金良彦·李希建·鄭忠臣·崔震立 등으로, 조선 초기부터 인조대까지 인물이 시대순으로 배열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해동명신록』에서는 전체적으로 항목의 명칭을 설정하여 인물구성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제1~2권과 제9권의 경우는 각각 儒賢 내지 名賢과 武將에 해당하는 인물들을 별도로 수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9권은 ‘名臣傳’ 중에서도 ‘名將傳’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각각의 인물에 대해서는 먼저 앞부분에 출생·자·본관 등 신상관계 사항을 기술하고, 그 다음으로 관직 진출 이후의 행적과 전공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끝부분에 사망 경위와 성품 및 인물평·시호 등을 기술하였다. 25명의 행적 또는 전공에 대한 서술을 살펴보면, 최윤덕은 세종대 대마도 정벌과 4군 개척, 李從茂는 세종대 대마도 정벌, 李從生은 이시애 반란 진압과 건주위 정벌, 魚有沼는 건주위 정벌, 俞應孚는 세종·문종대의 명장으로서의 행적,

16) 제9권 외에 제3~8권에서 수록하고 있는 인물 중에서 보완한 4명, 즉 ‘허종·김여물·권율·이정암’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개는 생략하기로 한다.

李德良은 이시에 반란의 진압을 대표적인 전공으로 기술하고 있다. 朴元宗은 중종반정, 張彦良은 4군 개척과 전주위 파병, 禹孟善은 평안도 순찰사 및 병사로서의 군공, 申翥은 북병사로서의 행적, 邊協은 명종대 을묘왜변 격퇴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뒤이어 수록하고 있는 이순신·원호·곽재우·유극량·황진·김덕령은 모두 임진왜란 극복에 기여한 명장들인데, 李舜臣은 녹둔도 전투에서부터 노량해전까지, 元豪는 니탕개란 격퇴와 임진왜란의 전공, 郭再祐는 의병 창의에서부터 화왕산성 수성까지, 劉克良은 임진왜란 때 부원수로서 순국, 黃進은 임진왜란 대비부터 진주성전투 순국까지, 金德齡은 의병대장으로서 억울한 죽음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기술하고 있는 인물은 단연 이순신과 곽재우였다.

다음으로 金應河는 深河 파병에서의 奮戰殉死, 柳珩은 임진왜란 의병 기병 및 이순신 휘하에서의 활동과 황해병사로 순직하기까지, 李曙는 인조반정 주도에서 병자호란 순국까지, 申景禛은 인조반정 기획에서부터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 농성 및 호종, 金良彦은 이괄 반란 진압 및 정묘호란 안주성전투에서 분전순사, 李希建은 이괄 반란 진압 및 정묘호란 안주 운암전투에서의 순국, 鄭忠信은 이괄 반란 진압 및 용장이자 명장으로서의 행적, 마지막으로 崔震立은 임진왜란 의병 기병에서부터 병자호란 용인 험천전투에서 분전순국까지를 기술하고 있다.

한편 『해동명신록』의 인물 선정과 관련해서는 그 정치적 입장을 西人系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주목된다. 즉, 김육이 활동했던 선조·광해군·인조대의 인물을 수록하고 있는 권6·권7·권8의 인물구성을 살펴보면 주로 서인계의 인물들로 구성되고 있는 반면에, 東人系의 인물로는 柳成龍·金誠一·李元翼·李德馨·鄭蘊 등 5명만을 기술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동명신록』은 김육의 黨色이었던 ‘서인계의 명신록’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

이다.¹⁷⁾

『해동명신록』의 당색에 대한 이러한 지적은 그 명장 선정에서는 후술하는 『해동명장전』·『대동장고』와 달리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의승장을 한 명도 선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도 주목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즉, 『해동명장전』·『대동장고』에서는 동일하게 휴정·유정·영규 등 세 명의 義僧將을 명장으로 선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휴정·영규는 차치하더라도, 後代의 軍談小說을 통한 명성 등을 고려할 때 ‘사명당 유정’이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서인 계열의 학문적 입장이었던 守朱子學的 교조성과 배타성을 보여주는 실례의 하나로 추론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② 『海東名將傳』

『해동명장전』은 잘 아는 바와 같이 역대의 명장전으로 널리 알려진 자료이다. 수록 인물은 삼국시대의 경우 신라의 金庾信 등 9명, 고려시대의 장수로는 庾黔弼 등 22명, 조선시대는 李之蘭을 비롯하여 24명으로 총 55명이다. ‘명장전’이라는 명칭을 내세워 저술한 인물집이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대 이전의 저술로는 사실상 유일한 사례로 파악된다. 편찬자는 정조대에 대제학을 지낸 耳溪 洪良浩(1724~1802)이다. 저술 시기는 정조 18년(1794)으로, 그의 나이 71세였다. 다만 간행 시기는 불명확한데, 현존하는 最古本은 순조 16년(1816)에 간행된 판본으로 일명 聚珍字本¹⁸⁾으로 부르고 있다.

홍양호는 『해동명장전』 저술 동기를 서문¹⁹⁾에서 임진왜란 등의

17) 홍순옥, 앞 글, 747쪽.

18) 유재호 번역, 『해동명장전』, ‘일러두기’, 198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외침을 겪고도 文治에만 힘쓰고 武備는 갖추지 않는 현실에 경중을 울리기 위해 역대 명장들의 열전을 저술했다고 하였다. 즉, 역사적 현실에 바탕하여 문무겸전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저술의 목적이었다. 실제로 홍양호는 대제학을 지낸 문신의 중심 인물이었지만, 武備와 관련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벽돌을 이용한 城堡의 구축을 주장한 대표적 벽돌유용론자였으며, 황해도와 평안도 관찰사 시절에는 海防體制를 재정비하는 한편, 군제 개혁·전차의 사용·連弩의 개발 등을 주장하였다. 또 역사지리학자인 申景濬과 교류하면서 영토의식을 배양하여, 조선의 이상적 국경선을 ‘백두강에서 흑룡강으로 이어지는 선’으로 규정하기도 했다.²⁰⁾

또한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는 김유신·을지문덕·강감찬·김방경 등의 활약으로 적과 싸워 한 치의 강토도 적에게 빼앗기지 않아 세상에서 우리나라를 強國이라고 부른 반면에,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강토는 옛날과 같고 백성 수는 줄어들지 않았으나 병력과 전공은 이전에 비해 뒤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선이 道學과 文章·節義에서는 뛰어난 인물이 많지만, 나라를 지킬 방패가 될 장수의 재목은 오히려 삼국시대보다 못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그는 역대 명장 열전을 저술하여 武備를 갖추지 않는 현실에 경중을 울리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 인식 외에 홍양호가 문신의 상징인 대제학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무비에 대해 다양한 관심을 표명하고, ‘명신전 또는 문신전’이 아닌 ‘명장전’을 저술한 데에는 또 다른 현실적·학문적 배경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홍양호는 역대 군왕 중에서 世祖를 가장 숭모하면서 문무병용정책을 추진했던 正祖²¹⁾

19) 유재호 번역, 앞 책, 1~4쪽 참조.

20) 정해은, 『한국 전통병서의 이해』, 465~466쪽, 200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1) 배우성, 「정조의 군사정책과 《무예도보통지》 편찬의 배경」, 『진단학보』 91, 2001, 진단학회 참조.

치세의 후반부에 대제학을 역임하면서²²⁾ 정조의 정책을 뒷받침했던 핵심 관료였다.²³⁾

홍양호는 영조의 후궁 ‘惠慶宮洪氏’로 상징되는 豊山洪氏 老論 京華巨族 출신이었지만, 본래의 가문적 배경과는 다른 길을 걸었다. 즉, 당시 鄭齊斗에서 비롯된 陽明學을 수용하고 오랑캐인 淸나라 문물의 수용을 주장하며 北學을 추진한 少論의 중심 인물로 활동하였다.²⁴⁾ 그런데 그의 학문적 바탕이었던 양명학이 바로 문무점진을 추구하는 새로운 학문체계였고,²⁵⁾ 종래 心性論과 禮論만을 추구하던 성리학의 학문세계에서 벗어나 利用厚生을 추구한 經濟之學·名物度數學을 개척해갔던 北學과도 일맥상통하는 논리였다.

『해동명장전』은 이러한 정치적·학문적 성향을 바탕으로 정조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로 그러한 개방적 학문자세에 따라 『해동명장전』에서는 『해동명신록』과 달리 ‘휴정·유정·영규’ 등 의승장 세 명을 새롭게 명장으로 수록하였다고 생각된다. 다시말해, 서인·노론계의 성리학적 교조성과 배타성을 극복한 학문적 바탕 위에서 명장 선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을 듯하다.

22) 홍양호는 정조 17년(1793) 홍문관과 예문관의 대제학, 즉 양관 대제학에 임명된 이후 出入이 없지 않았지만 이미 70세가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제학의 지위를 兼帶했던 듯하며, 1800년(정조 24) 정조가 붕어할 당시에도 대제학으로서 정조의 시장을 찬술하였다.

23) 김용홍, 「18세기 관인 실학자의 정치비평과 탕평책 : 이계 홍양호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78, 2011, 경남사학회 참조.

2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글이 참조된다.

① 한영우, 「19세기 전반 洪敬謨의 歷史敍述」, 『한국문화』 11, 1990,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② 이군선, 「관암 홍경모의 가문의식」, 『한국학논집』 39, 95~97쪽, 2005,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25) 양명학의 문무병용사상 및 그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글이 참조된다.

① 박연수·조은영, 「왕양명의 군사사상」, 『양명학』 1, 1997, 한국양명학회.

② 박연수, 「문무를 겸한 실천적 군사지휘자로서 왕양명」, 『양명학』 9, 2003, 한국양명학회.

『해동명장전』에서 수록하고 있는 조선시대의 명장은 앞서 언급했듯이 모두 24명이다. 각각의 인물에 대해서는 『해동명신록』과 마찬가지로 모두 먼저 개인적인 인적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한 다음, 본문에서는 戰功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끝부분에서는 사망 경위와 성품 및 인물평, 그리고 시호 등 기념 사실 등을 서술하고 있다.

이들 24명의 면면을 수록 순서대로 열거해보면, 李之蘭·최운덕·이종생·어유소·이순신·권율·곽재우·鄭文孚·황진·休靜·惟政·靈圭·鄭起龍·金時敏·이정암·林仲樑·김덕령·정충신·김응하·金應海·林慶業·鄭鳳壽·柳琳·유형 등이다. 이러한 인물 구성을 앞서 소개한 『해동명신록』과 대비해 보면, 우선 수록 인원이 29명에서 24명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수록 인물을 서로 대비해 보면 『해동명신록』에서는 이종무·이덕량·유응부·허종·박원종·장언량·우맹선·변협·김여물·원호·신의·유극량·최진립·이서·신경진·김양언·이희건 등 무려 17명이, 『해동명장전』에서는 이지란·정문부·휴정·유정·영규·정기룡·김시민·임중량·김응해·임경업·정봉수·유림 등 12명이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해동명신록』과 『해동명장전』 두 문헌에서 모두 50%를 상회하는 인물 구성의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해동명신록』과 『해동명장전』의 두 문헌에서 보여주는 인물 구성의 높은 편차는 앞서 살펴봤듯이 기본적으로는 두 편찬자의 당색 또는 학문성향의 차이를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모든 원인을 당색 및 학문성향의 차이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문헌의 인물 구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대비해보면 『해동명장전』에서는 『해동명신록』의 수록 인물 중에 대체로 倭寇 擊退 관련 인물이 퇴조한 반면에, 女眞 征伐 관련 인물이 다수 수록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즉, 『해동명신록』에 수록되었으나 『해동명장전』에 연속하여 등재되지 못한 17명 가운데 유응부·허종·박원중·이서·신경진·김양언·이희건 등 7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 즉 이종무·이덕량·장언량·우맹선·변협·김여물·원호·신익·유극량·최진립 등은 대체로 왜구 격퇴나 임진왜란 관련 인물들이다. 반면에 『해동명장전』에서 새로이 선정된 인물들의 상당수, 즉 이지란·정문부·임경업·정봉수·유림 등은 모두 여진 정벌 또는 병자호란과 관계된 인물들이다.

특히, 이지란이 새롭게 주목된 것은 정조의 關北 開發을 뒷받침하는 일련의 저술 속에서 북방 문제와 관련된 인물들이 새롭게 조명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홍양호는 일찍이 경흥부사를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北塞記略』을 저술하였다. 또한 정조의 관북지역 개발을 뒷받침하여 『北道陵殿誌』·『興王肇乘』 등도 저술하였다. 이에 따라 태조 이성계와 고락을 함께했던 ‘이지란’ 등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북방 문제 관련 인물들도 새롭게 재조명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③ 『大東掌攷』

『대동장고』는 조선후기 순조~헌종년간에 고위 관료문인으로 활동한 洪敬謨(1774~1851)가 저술한 典故類 역사서이자 인물지이다. 최근에 그 존재가 확인되고 본격적으로 조명되고 있는 자료이다.²⁶⁾ 모두 13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책은 ‘歷代攷’로 단군

26) 『대동장고』 및 홍경묘의 생애·학술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 논저로는 다음의 글이 참조된다.

- ① 한영우, 「19세기 전반 洪敬謨의 歷史敘述」, 『한국문화』 11, 1990,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 ② 심경호, 「조선후기 국가장고류 및 인물지 편찬 경향과 《대동장고》의 위치」, 『관암 홍경묘와 19세기 학술사』, 2011, 경인문화사.
- ③ 강석화, 「19세기 京華士族 洪敬謨의 생애와 사상」, 『한국사연구』 112, 2001, 한국사연구회.

조선에서부터 조선 정조까지 각 국가의 왕별로 중국과의 연대 비교, 이름·생몰년·재위기간·派系·왕비·능묘·치적·사적·攷異 및 각 왕조별 인물·屬國 등의 항목을 두어 정리한 일종의 역사편람서이다. 제2책부터 제13책은 신분 및 관직·주제별로 항목을 설정하여 관련 인물의 명단을 배열한 인물지로서, 항목에 따라서는 관련 전고 및 재직기간 등을 細註 형식으로 부기하였다.

구체적인 편찬을 살펴보면, 제2책은 椒掖攷(왕비)·宗英攷(대군 및 왕족)·국구고·의빈고·輔相攷·국초검교정승·총재고 등 왕실 및 재상층을 7항목으로 나누어 수록하였고, 제3책은 사마고·문형고·별천문형·문형권점록, 제4책은 文任攷·호당고·옥서고·강관고·국자고, 제5책은 中書攷·전랑고, 제6책은 內翰考, 제7책은 용원고·耆社攷·休退攷, 제8책은 司勛攷, 제9책은 방백고(경기·해서·호서 관찰사), 제10책은 방백고(관동·영남·호남 관찰사), 제11책은 방백고(관서·관북 관찰사), 使星攷의 두 항목으로 구성하고 있다.

제12책은 別編과 外篇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별편에서는 본고의 주제와 관련된 ‘名將攷’ 등을 수록하고 있다. 즉, 제12책의 별편은 儒林攷·詩人攷·筆苑攷·畫家攷·淸吏攷에 뒤이어 ‘名將攷’의 항목을 설정하고 있다. 이어서 ‘외편’이라는 편목 하에 태묘종향고·문묘종향고·계성사종향고·장릉배식고 등을 설정했다. 마지막 제13책은 역시 외편이라는 편목 하에 內翰薦圈錄과 內閣攷로 구성하고 있다.²⁷⁾ 한편, ‘명장고’를 수록하고 있는 제12책 별편 부분에서는 분류 항목에 해당하는 인명만을 배열하고 있다.

『대동장고』의 편찬자 홍경모는 자는 敬修, 호는 冠巖으로 조선후기 대표적 京華巨族의 하나인 豊山洪氏 출신이다. 풍산홍씨는 宣祖 때 대사헌을 지낸 洪履祥으로부터 현달하였고, 6대조인 洪柱元이

④ 이군선, 『관암 홍경모의 시문과 그 성격』, 2003, 성균관대 박사논문.

⑤ 이종목 편저, 『관암 홍경모와 19세기 학술사』, 2011, 경인문화사.

27) 편차 구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경호, 앞 논문, 291~295쪽이 참조된다.

선조의 딸인 貞明公主의 부마가 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유복하게 됐다. 그가 태어난 한성 남부 薰陶坊 泥岷(진고개)에는 5대조인 洪萬恢 때 지은 四宜堂이라고 부른 530칸에 이르는 대저택이 있었다. 인조 때에 본래 明禮宮의 舊基였던 땅을 사들여 정명공주에게 내려주어 택지로 삼게했던 것이다.²⁸⁾

또 그 어머니는 臨瀛大君의 후손인 李存遠의 딸이었고, 홍경모 역시 경화거족의 하나였던 豐壤趙氏 판서 趙弘鎭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外家와 妻家가 모두 名門이자 權門이었다. 게다가 傍系로는 英祖의 후궁이자 正祖의 친모인 惠敬宮洪氏로 상징되는 영·정조대의 세도가인 洪鳳漢·洪麟漢 형제 및 洪國榮 등이 그의 집안이었다.²⁹⁾ 특히, 동갑의 族姪로 燕巖學派의 일원이었던 洪奭周와 친교가 두터워서, 홍석주는 홍경모가 급제한 이후 그를 자주 요직에 추천하였다.³⁰⁾

홍석주의 학문과 저술은 家學의 영향에 힘입은 것이었다. 홍경모는 다름 아니라 정조 때 대제학으로 활약한 耳溪 洪良浩의 직손자였다. 아버지 洪樂源이 24세로 요절함에 따라 사실상 할아버지의 사랑과 가르침 속에서 성장하였다. 그의 집안은 牛耳洞 계곡에 耳溪岩棲라고 부른 5代 傳承의 別莊이 있었고, 그 별장 안에는 儒·佛·道 3教에 이르는 방대한 서적이 가득해 독서와 저술 활동의 자료가 되었다. 홍양호의 號가 ‘이계’였던 까닭이었으며, 홍경모도 우이동의 ‘冠岩山’에서 取하여 그의 호로 삼았다.

이렇듯 할아버지 홍양호를 지극히 흠모하였던 홍경모는 29세에 父兄이자 스승이었던 홍양호가 운명하자 비상한 가문의식을 발휘

28) 이군선, 「관암 홍경모의 가문의식」, 『한국학논집』 39, 93~100쪽, 2005,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29) 한영우, 앞 논문, 506~507쪽 참조.

30) 강석화, 「관암 홍경모의 학문과 사상」, 『관암 홍경모와 19세기 학술사』, 6쪽, 2011, 경인문화사.

하여 그 遺品을 보존하는 한편, 문집의 편집·간행을 통해 遺志를 받들고자 노력했다.³¹⁾ 그런 측면에서 흔히 홍양호의 저술로 알려져 있는 『北塞記略』이 실상은 홍양호가 지은 『朔方風土記』를 바탕으로 홍경모가 여러 문헌에서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재편한 것이라는 논의³²⁾는 매우 시사적이다.

홍석주는 할아버지인 홍양호의 가학을 이어갔던 명실상부한 계승자였으므로, 그 역사인식이나 인물 평가 등에 있어서도 동일한 양상을 유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그러한 측면은 『대동장고』 ‘명장고’의 인물 구성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즉, 『대동장고』 ‘명장고’에 수록된 조선시대 명장의 구성은 사실상 『해동명장전』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그 인물 명단을 살펴보면 이지란·최윤덕·이종생·어유소·이순신·권율·곽재우·정문부·휴정·유정·영규·정기룡·김시민·이정암·임중량·김덕령·정충신·김응하·임경업·정봉수·유림 등 21명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러한 인물 구성은 『해동명장전』의 24명 중에서 황진·김응해·유형 등 3명만이 미등재된 것이다.

『대동장고』에서 위 3명이 미등재된 원인과 관련해서는 우선 김응해·유형의 경우는 『해동명장전』에서 각각 김응하·유림의 항목에 부가적인 형태로 기술된 인물이라는 점을 주목해볼 수 있다. 즉, 부차적인 인물로 인식되어 탈락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점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논리는 또 다른 미등재 인물인 ‘황진’의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해동명장전』에서 황진은 독립적인 항목으로 편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까닭으로는 『대동장고』가 미완성본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본래 『대동장고』는 그 書名에서 알 수

31) 이군선, 앞 논문, 93~100쪽 참조.

32) 손성필, 「《북새기략》의 편찬 경위와 편찬자 문제」, 『민족문화』 43, 304~308쪽, 2014, 한국고전번역원.

있듯이, 국가적인 故實을 정리하여 거대한 政書나 類書로 편찬하려 했던 듯하다. 그러나 그 의도는 ‘역대고’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지만, 인물지의 경우는 인명 나열의 수준에 그치는 불완전한 저술이었다. 부분적으로는 ‘김경손’과 같이 고려시대 인물을 중복 수록하는 오류가 찾아지기도 한다.

홍양호와 홍경모는 조선후기 京華世族의 하나인 풍산홍씨 가문의 고위관료들이었다. 반면에 그 정치적 입장은 ‘혜경궁홍씨’로 상징되는 老論 勢道家와 대립하였다. 그의 집안은 할아버지 홍양호 때부터 江華 陽明學派의 학문을 수용한 少論系의 핵심세력이었다.³³⁾ 할아버지 홍양호는 자기 이하 3대의 향렬자를 改名할³⁴⁾ 만큼 독자적인 계보의식을 발휘하며, 양명학에 바탕한 새로운 학문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방대한 독서 및 저술을 남기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홍경모 또한 그 계승자로서 역사서와 인물록을 아우르는 저술로서 『대동장고』의 편찬을 통해 소론 양명학파의 학문적 입장과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고자 하였다. 다만, 그 목표는 초출 단계에서 미완성인 채로 끝났던 듯하며, 그에 따라 일부에서는 미숙하게 정리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④ 『文獻便考』

『문헌편고』는 그 명칭에서 예상해볼 수 있듯이, 주로 조선시대의 명망가들을 전고별로 나누어 그 명단만을 제시한 일종의 인물편람서이다. 이번 논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발굴한 자료이다. 먼저 그 목차구성에 대해 살펴보면 권수 구분이 없이 政堂故事

33) 정호훈, 「조선후기 소론가의 학문 진통과 홍경모」, 『관암 홍경모와 19세기 학술사』, 464~465쪽, 2011, 경인문화사.

34) 이군선, 앞 논문, 464~465쪽 참조.

附枚卜으로부터 文衡故事 附衡圈·유림록·逸薦抄選·湖堂故事 附清白吏錄·海東名將錄·金壇錄·親軍監督·文武制摑錄·麟閣錄 附士禍·麗朝節義錄·宗廟配享·俎豆錄·諡法·明朝陪臣錄·明朝東援錄·日本通信使·外國人來仕·文章·筆苑·名畫·東方傳運 附人口·官司·軍需·五部字內·烽燧式例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26항목을 평면적으로 배열하고 있다.

또 단지 인물록에 그치지 않고 그 말미에 東方傳運 附人口·官司·軍需·五部字內·烽燧式例 등의 다섯 항목에 걸쳐 단군에서부터 조선 왕조에 이르기까지의 치세기간 및 상식 편람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수록하고 있다. 즉, 그 이전의 전고류 편람서들이 먼저 ‘歷代篇’을 두어 먼저 역사에 대해 개괄하고 그 다음에 인물록을 설정하였던 것과는 반대 방식이다. 먼저 인물록을 배열하고, 역사편을 뒤로 돌리는 방식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

또한 항목 구성에서도 무장 관련 항목이 海東名將錄에 뒤이어 金壇錄·親軍監督·文武制摑錄 등 네 주제에 이르는 등 문신 관련 다섯 항목과 거의 대등하게 배열되고 있다. 또 明朝陪臣錄·明朝東援錄·日本通信使·外國人來仕와 같이 주변국 관련 항목도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를테면 편찬 방식이나 항목 배열 등에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 간략히 그 명단만을 제시하는 편람서로서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했던 듯하다.

편찬자인 李章薰은 1923년 당시 전래의 문헌이 부족함을 안타깝게 여겨서 여러 문헌을 두루 수집하고 참고하여 世道가 一變한 현실에 맞추어 새로운 편차로서 편람서를 만들고자³⁵⁾ 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새로운 편술에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상업적인 성공도 상당히 기대했던 것 같다. 『문헌편고』를 간행한 직후 『동아일보』를 통해 대대적인 광고를 벌여 판매에도 열정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35) 『文獻便考』, 「序」, “我東文獻之不足 徵者久矣…刪繁就要 以成一編.”

있기 때문이다. 즉, 1923년 3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다섯 차례³⁶⁾에 걸쳐 『동아일보』 1면 중앙부에 선전 광고를 실었다. 당시 그 선전 문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心을 留하여 文華의 由來를 溯求하고 意를 有하여 民族의 興替를 闡究할 새 萬卷蟲書는 漠하여 翻할 수 없으며 巷間의 傳語는 荒하여 取하기 難하다. 이에 芝山 李氏 心을 苦한 지 累歲에 簡明撮要한 此書를 編하니 上으로 太祖故事 黃閣錄으로 始하여 下으로 高宗甲申難에 至하기까지 良相 名將 賢哲 貞烈 文章 名筆 畫宗을 ——이 昭略하고 다시 道通의 淵源인 文廟 書院을 附記하니 半千年史의 考察이 一目에 瞭然한지라. 學에 志를 立한 者의 缺치 못할 良書이다.

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 책은 상당히 상업적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듯하다. 그러나 오늘날 이 문헌은 그 존재조차 인식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 까닭은 크게 두 가지 측면과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우선 편찬자인 이장훈의 親日 行蹟을 들 수 있다. 이장훈은 호가 芝山으로 근대 계몽운동기부터 언론출판인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1907년 『대한매일신보』에 입사한 이후 1908년부터 시사평론 담당자로 활약했다. 1909년 11월 30일에 『한성신보』를 자리를 옮겼다가, 다시 『대한매일신보』로 복귀했다.

그 뒤 1910년 6월 14일 영국인 만함으로부터 40,000원에 『대한매일신보』의 판권을 사들여 1910년 8월 28일까지 『대한매일신보』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활동했다. 그런데 당시 『대한매일신보』는 1910년 5월 21일부터 일제 통감부에 매수되어 그 기관지로 전락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이장훈은 『대한매일신보』에서 ‘대한’을 떼고 『매일신보』로 명칭을 바꾸었고, 1910년 8월 30일부터 1910년 10월 21일까지 발행인 겸 편집인을 역임하며 일제의 식민통치에 기여했다.³⁷⁾

36) 3월 25일, 3월 28일, 4월 7일, 4월 10일, 4월 17일에 해당한다.

37)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보고서』 IV-13, 865~875쪽, 2009.

두 번째는 이듬해인 1924년 또 다른 인물지로서 『전고대방』이 간행된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전고대방』의 목차를 보면, 『문헌편고』의 수록 항목을 포괄함을 물론 ‘역대고’를 전면에 배치하여 전통적인 체제를 따르면서 당시까지의 인물지 중심 역사서술을 종합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문헌편고』와 같이 일정하게 제한된 항목만을 수록한 저술은 그 자리를 『전고대방』에게 내주어야 하지 않았나 판단된다.

실제로도 이후 전근대의 역사편람서 및 인물록을 대표하는 저술로는 『전고대방』이 자리를 잡았음을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1936년에 벌써 9판을 간행하는 상업적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그런데 사실 『전고대방』의 이러한 성공은 이 문헌이 간행 이전부터 상당히 식자층에 유포되어 있던 데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고대방』이 현대적 활자본으로 간행된 것은 1924년이 처음이지만, 그 원본은 이미 1910년대에 식자층들이 폭넓게 활용하고 있었던 듯하다.

『문헌편고』에서 명장 관련 인물 선정은 ‘해동명장록’이라는 주제하에 모두 19명을 수록하고 있다. 그 면면에 대해 살펴보면 최윤덕·李浚·許琮·黃衡·邊協·申砬·金汝叻·이순신·권율·곽재우·김시민·정충신·金景瑞·沈摠·임경업·정봉수·유림·李浣·申瀏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물 구성은 앞서 살펴본 『해동명신록』이나 『해동명장전』·『대동장고』와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해동명신록』과 수록 인물을 비교해 보면 이종무·어유소·이덕량·유응부·이종생·박원중·장언량·우맹선·원호·신익·유극량·이정암·황진·김덕령·최진립·김응하·이서·신경진·김양언·이희건·유형 등 무려 21명에 걸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29명 중에서 8명을 제외하고 모두 새로운 인물로 대체되고 있으며, 그 편차는 7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반면에 『문헌편고』에서 새롭게 수록

하고 있는 인물도 이준·황형·신립·김충선·김경서·심충·임경업·정봉수·유림·이완·신류 등 11명으로, 그 편차는 약 6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해동명장전』과 비교해 보면 먼저 기본적인 차이는 휴정·유정·영규 등의 의승장들이 모두 수록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후술하는 『전고대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만 보면, 다섯 문헌 가운데 『해동명신전』·『문헌편고』·『전고대방』을 하나의 계통, 즉 서인 또는 노론계열의 명장 선정으로, 『해동명장전』·『대동장고』를 또다른 계통, 즉 소론 및 나아가 남인계열의 명장 인식으로 대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편 이에 따르면 명장 선정의 기준에서 당색별 차이보다는 시대 의식의 차이가 보다 규정적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앞서 살펴봤듯이, 『해동명신전』과 『해동명장전』의 수록 인물의 편차가 50% 수준이었던 반면에, 『해동명신전』과 『문헌편고』 또 『해동명장전』과 『문헌편고』의 편차는 70% 전후의 수준이다.

두 비교치가 모두 50%를 넘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그 차별성도 의미가 없게 되겠지만, 단순히 그 수치대로 비교한다면 당색별·학문성향의 차이보다는 시대의식의 차이가 보다 규정적인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문헌편고』의 인물 구성이 뒤이어 이듬해에 간행된 『전고대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⑤ 『典故大方』

『전고대방』은 앞서 언급한대로 학술적 측면보다는 譜學的 資料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인물편람서이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아직 이 자료를 활용한 본격적인 논의는 시도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책에서

역대 名將에 대한 항목을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아마도 현대적 방식의 인물사전이라기 보다는 전통적 분류방식에 의한 인물 편람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이 책의 편저자인 痴堂 姜敷錫이 『大東奇聞』과 『東國戰亂史』의 저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그 가치는 충분히 재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동기문』은 역대 名人들에 대한 야사류 전기집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자료이고, 『동국전란사』는 삼국시대 이래 조선 말기까지의 대내외 전쟁·전투에 대해 처음으로 개설한 자료에 해당한다. 강효석은 일제시기에 漢陽書院이라는 출판사를 직접 경영하면서 역대 고전의 간행·보존에 힘썼던 인물이다. 그리고 그의 3부작 중 『전고대방』이 첫 번째 사업이었다. 38)

사실 『전고대방』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현재의 실정은 이미 이 책을 간행할 때부터 토로되고 있었다. 직접적으로 그 가치와 인식 실태에 대해 간행 당시의 解題를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冊은 우리나라 舊知識인들이 案頭에 常置해놓고, 國史知識 乃至 人物常識을 넓히고 辭典이나 핸드북 같이 궁거운 項目을 찾아보던 冊이다. 近來에는 國語로 된 國史辭典, 人名辭典 등 歷史, 人物에 關한 參考書가 나와 漢文으로 되고, 索引도 없는 이러한 책이 차츰 利用度가 낮아지고 있는 듯한 感도 있으나, 아직껏 老學者들이나 漢文에 多少 素養이 있는 사람치고 이 冊을 모르는 이는 드므리라고 생각된다. 39)

이렇듯 『전고대방』은 舊知識人이나 老學者, 곧 전통적 학문의 측면에서는 국사 상식 내지 인물 상식, 다시 말해 역대의 국가 및

38) 『전고대방』, 『대동기문』, 『동국전란사』는 각각 1924년, 1926년, 1928년에 간행되었다.

39) 李章佑, 「典故大方 解題」, 『典故大方』, 1975, 亞細亞文化社.

왕실·성씨의 계통이나 인물과 관련된 각종 典型에 대한 常識的 參考書에 해당하는 서적이었다. 그런데 이미 간행 당시에 새로운 방식, 즉 이른바 新式 또는 新學問의 국사사전·인명사전 등에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있던 실상도 분명하게 포착되고 있었다.

그러나 『전고대방』은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명맥이 이어졌고, 그 결과 전통적인 형식의 인물사전을 대표하는 문헌으로 자리잡았다. 즉, 전통적 보학류 계통의 인물·문화 사전이라든가 현대적 인물·족보사전 등을 통해 그 인물 분류의 내용이 명칭만 달리하여 계속 再版되고 있거나 ‘附錄’ 등을 통해서 그대로 전재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고의 논의 대상인 ‘名將錄’이라든가 儒賢淵源圖·四色黨派原因略說附略圖·宣祖壬辰殉義諸人·義兵將 등의 항목을 비롯해, 宣祖壬辰明朝東援錄·泰西各國交通及通信使·外國人來仕 등의 항목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측면의 자료로 활용이 기대될 만하다. 그런 까닭에 『전고대방』의 각종 인물 분류 항목은 전통적 역사·의식 내지 문화의식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대표적인 인물사전 내지 인물 편람으로 지속적으로 간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전고대방』은 전통시대의 최종적인 문화산물로 간행되었던 까닭에 서인-노론계열의 당색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고대방』이 서인-노론계의 관점을 취한 문헌이라는 근거로는 四色黨派原因略說附略圖 다음에 배열하고 있는 항목인 ‘十二士禍錄’을 들 수 있다. 다음아니라 ‘十二士禍錄’은 연산군대 이후 전개된 士禍 및 黨禍의 과정에서 다음아닌 서인-노론계열의 입장을 반영한 용어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열두 번의 사화 중에서 마지막 11번째 및 12번째에 서인-노론세력이 입은 黨禍였던 肅宗己巳士禍와 景宗辛壬士禍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숙종 15년(1689)의 기사사화, 즉 己巳換局을 통해서도 노론의 정신적 지주였던 宋時烈이 죽음을 당했고, 경종

년간의 신입사화, 즉 辛丑獄事(1721)와 壬寅獄事(1722)를 통해서는 이른바 노론의 4대신 金昌集·李頤命·李健命·趙泰采 등이 賜死되는 비운을 겪었다.

『전고대방』의 명장록에서 수록하고 있는 조선시대의 명장은 모두 18명이다. 그 면면은 최윤덕·李浚·許琮·黃衡·邊協·申砬·金汝叻·이순신·권율·곽재우·김시민·정충신·金景瑞·沈摠·임경업·정봉수·유림·李浣·申瀏 등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문헌편고』의 인물 선정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문헌편고』의 인물구성에서 ‘김충선’만 제외하면 그 인물 구성이 일치하게 된다.

3. 수록 빈도와 관련 전쟁·전투 분석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섯 종류 문헌의 수록 인물을 비교 검토해본 결과 그 구성에는 커다란 편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그 편차는 무려 50~70%에 이르는 수준이었다. 다만, 그 편차는 당색별·학문성향의 차이보다는 시대의식의 차이가 보다 규정적임도 알 수 있었다. 서인-노론계와 소론-남인계로 구분될 수 있는 두 계통의 문헌의 비교 편차보다, 시대를 달리하는 서인-노론계의 문헌의 비교 편차가 훨씬 상회하는 수치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후기 이래 전승된 명장 인식은 시대의식의 공유를 바탕으로 하되, 당색 및 학문성향에 따라 일정한 편차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문헌별 수록 인물의 비교 편차가 개별 인물의 대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개별 인물에 대한 비교는 무엇보다 그들의 행적, 즉 戰功이나 軍功 및

그와 관련된 戰爭·戰鬪의 규모나 성격과 연계되기 마련이라는 점이 전제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먼저 다섯 종류의 문헌에 수록된 인물 전체에 대해 총괄적 대비표를 제시하여 수록문헌수, 즉 수록 빈도를 살펴보고, 그 바탕 위에서 관련된 전쟁·전투 등을 상호 비교하는 방식으로 인물 선정의 객관적 기준 검출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다섯 종류의 문헌에서 수록하고 있는 인물 전체에 대해 총괄 대비표를 제시해보면, 다음의 표②와 같다.

【표② 고문헌 수록 명장 선정 총괄 대비표】

순번	인 명	해동명신전 (1651)	해동명장전 (1794)	대동장고 (1817경)	문헌편고 (1923)	전고대방 (1924)	수 록 문헌수
1	이지란李之蘭		○	○			2
2	이종무李從茂	○					1
3	최운덕崔潤德	○	○	○	○	○	5
4	어유소魚有沼	○	○	○			3
5	이덕량李德良	○					1
6	유응부俞應孚	○					1
7	이준李浚				○	○	2
8	허종許琮	◎			○	○	3
9	이종생李從生	○	○	○			3
10	박원종朴元宗	○					1
11	장언량張彦良	○					1
12	우맹선禹孟善	○					1
13	황형黃衡				○	○	2
14	신립申砮				○	○	2
15	변협邊協	○			○	○	3
16	김여물金汝叻	◎			○	○	3
17	이순신李舜臣	○	○	○	○	○	5
18	권율權慄	◎	○	○	○	○	5
19	김시민金時敏		○	○			2

20	원호元豪	○					1
21	신익申翬	○					1
22	유극량劉克良	○					1
23	이정암李廷飴	◎	○	○			3
24	휴정休靜		○	○			2
25	유정惟政		○	○			2
26	영규靈圭		○	○			2
27	곽재우郭再祐	○	○	○	○	○	5
28	황진黃進	○	○				2
29	정기룡鄭起龍		○	○			2
30	임중량林仲樑		○	○			2
31	김덕령金德齡	○	○	○			3
32	김충선金忠善				○		1
33	최진립崔震立	○					1
34	정충신鄭忠信	○	○	○	○	○	5
35	김응하金應河	○	○	○			3
36	김응해金應海		○				1
37	김경서金景瑞				○	○	2
38	정문부鄭文孚		○	○			2
39	이서李曙	○					1
40	신경진申景禎	○					1
41	심충沈揔				○	○	2
42	임경업林慶業		○	○	○	○	4
43	정봉수鄭鳳壽		○	○	○	○	4
44	김양언金良彦	○					1
45	이희건李希建	○					1
46	유림柳琳		○	○	○	○	4
47	유형柳珩	○	○				2
48	이완李浣				○	○	2
49	신류申瀏				○	○	2
소 계		29명	24명	21명	19명	18명	

* ◎ : 『해동명신록』 무장 항목(권9)에 수록된 인물 외에 네 문헌과 비교하여 보완한 인물

앞의 대비표에서 알 수 있듯이, 5종의 문헌에서 수록하고 있는 인물 구성을 살펴보면 『해동명신록』이 29명, 『해동명장전』이 24명, 『대동장고』가 21명, 『문헌편고』가 19명, 『전고대방』이 18명이다. 그리고 다시 다섯 문헌에서 서로 중복되는 인물을 제외하면 그 총수는 49명이다. 시기적으로는 조선의 건국기에 활동한 이치란에서부터 효종대 나선파병의 지휘관으로 활약했던 신류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해동명신록』을 제외하면 모두 효종 이후 정조·순조 및 근대에 편찬된 문헌이지만, 영조대 戊申亂이나 洪景來亂, 두 차례의 洋擾 과정에서 활약한 梁憲洙·魚在淵 등을 새롭게 명장으로 선정하고 있지 않음도 살펴볼 수 있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위 5종의 자료는 두 계통의 인물 구성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유의미한 비교 수치를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문헌 이상에서 선정되고 있는 인물들을 대상으로 공통성과 차별성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수록문헌수의 다과 내지 수록 빈도의 우위에 따라 먼저 5종의 문헌에서 모두 명장으로 선정하고 인물을 살펴보면, 최윤덕·이순신·권율·곽재우·정충신 등 5명이다. 조선 전기의 인물로는 최윤덕이 유일하고, 이순신·권율·곽재우는 잘 아는 바와 같이 임진왜란 때 활약한 명장들이다. 그리고 정충신은 인조대 활약한 용장이자 명장이다.

다음으로 4종의 문헌에서 명장으로 선정하고 있는 인물로는 임경업·정봉수·유림 등 3명으로, 이들은 모두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과정에서 활약한 인물들이다. 끝으로 3종의 문헌에서 명장으로 선정된 인물들은 어유소·허종·이종생·변협·김여물·이정암·김덕령·김응하 등 8명이다. 어유소·허종·이종생·변협 등 4명은 조선 전기의 여진 정벌 및 왜구 격퇴에서 공훈을 세운 인물들이고, 김여물·이정암·김덕령 등 3명은 임진왜란 때 활약한 지휘관 및 의병장이다.

김여물은 충주 탄금대전투에서 奮戰殉國하였고, 이정암은 황해도 연안대첩의 의병장, 김덕령은 일본군의 한성 철수 이후 의병총대장으로 활약하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무장이다. 김응하는 광해군 대 심하파병 과정에서 분전순사한 지휘관이다. 이러한 분포상을 다시 한 번 총괄하여 그 대비표를 제시해 보면, 다음의 표③과 같다.

【표③ 세 종류 문헌 이상 수록 명장 총괄표】

순번	인명	해동명신전 (1651)	해동명장전 (1794)	대동장고 (1817경)	문헌편고 (1923)	전고대방 (1924)	수록 문헌수
1	최윤덕	○	○	○	○	○	5
2	어유소	○	○	○			3
3	허종	◎			○	○	3
4	이종생	○	○	○			3
5	변협	○			○	○	3
6	김여물	◎			○	○	3
7	이순신	○	○	○	○	○	5
8	권율	◎	○	○	○	○	5
9	이정암	◎	○	○			3
10	곽재우	○	○	○	○	○	5
11	김덕령	○	○	○			3
12	정충신	○	○	○	○	○	5
13	김응하	○	○	○			3
14	임경업		○	○	○	○	4
15	정봉수		○	○	○	○	4
16	유림		○	○	○	○	4
소 계		13명	13명	13명	11명	11명	

한편 위 표③의 16명 중에서 4종~3종의 문헌에서 선정된 인물들에 대한 수록 문헌상의 시대별 연속성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4종의 문헌에서 선정된 3명, 즉 임경업·정봉수·유림을 수록하고 있는 문헌을 살펴보면, 이들 3명이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를 거쳐 『문헌편고』·『전고대방』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등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계통을 달리하는 문헌인 『해동명장전』·『대동장고』와 『문헌편고』·『전고대방』에서 이들 3명이 연속적으로 수록되고 있다는 것은, 그 선정 기준이 시대와 당색에 관계없이 적용되고 있음과 동시에 당색적 측면보다는 시대의식의 공유가 보다 규정적이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 인물 선정에서 『문헌편고』나 『전고대방』이 동일 계통인 『해동명신전』의 인물 선정이 아니라, 계통이 다른 『해동명장전』·『대동장고』와 계승성 내지 친연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특성은 3종의 문헌에 수록된 인물들의 연속성 분포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위 표②에서 확인되는 3종의 문헌에 수록된 8명의 명장들의 수록 문헌의 연속성을 살펴보면 어유소·이종생·이정암·김덕령·김응하 등 5명이 『해동명신록』과 『해동명장전』·『대동장고』 등 서로 계통을 달리하는 문헌에서 연속적으로 수록되고 있다. 반면에 나머지 3명, 즉 허종·변협·김여물은 모두 서인계 문헌인 『해동명신록』과 『문헌편고』·『전고대방』에서만 명장으로 수록되고 있다.

즉, 전자의 5명은 효종대와 정·순조대라는 시간적 격차 및 서인계와 소론계로 대비되는 당색적 차이에 관계없이 연속적으로 3종의 문헌에서 모두 명장으로 선정되고 있었던 반면에, 후자의 3명은 일정하게 당색의 영향 하에서 선정되고 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시 한 번 위 5종의 문헌에 수록된 명장들의 선정 기준으로 당색적 차별성 보다 시대의식의 차이가 규정적이었음이 확인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사항을 다시 총괄하여 표로써 제시해보면, 다음의 표④와 같다.

【표④ 3~4종류 문헌 수록 명장의 시대별·당색별 관련성 비교표】

순번	인명	해동명신전 (1651)	해동명장전 (1794)	대동장고 (1817경)	문헌편고 (1923)	전고대방 (1924)	수록 문헌수
1	임경업		○	○	○	○	4
2	정봉수		○	○	○	○	4
3	유림		○	○	○	○	4
4	여유소	○	○	○			3
5	이종생	○	○	○			3
6	이정암	◎	○	○			3
7	김덕령	○	○	○			3
8	김응하	○	○	○			3
9	허종	◎			○	○	3
10	변협	○			○	○	3
11	김여물	◎			○	○	3
소 계		8	5	5	3	3	

위 표④의 음영 처리 부분을 통해 뚜렷히 대비되듯이, 수록 문헌의 연속성이 계통이 다른 4종~3종의 문헌에서 우월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즉, 서인-노론계와 소론-남인계로 계통이 다른 문헌에서 8명이 연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서인-노론계로 당색이 같은 문헌에서는 3명만이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위 5종의 문헌에 적용된 명장 선정의 기준으로는 당색·학문성향의 차이를 뛰어넘어, 시대의식의 공유가 보다 규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듯 당색·학문성향의 차이를 뛰어넘어 시대의식을 공유하면서 지속적으로 명장으로 선정된 인물들의 개별적 요소는 어떠한 것이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명장에 대한 논의이니 만큼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戰功·軍功 또는 관련 戰爭·戰鬪와 밀접하게 연관되게 마련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먼저 앞서 살펴본 총 16명의 명장들의 전공과 군공 또는 그들이 활약했던 전쟁·전투의 규모를 연계시켜 총괄적으로

대비표를 작성해 보면, 다음의 표⑤와 같다.

【표⑤ 세 종류 문헌 이상 수록 명장의 전쟁·전투 비교표】

순번	수록 문헌수	전공·군공/전쟁·전투	인명	비고
1	5회	대마도정벌·4군개척	최윤덕	
2			이순신	
3		임진왜란	곽재우	
4			권율	
5			정충신	
6	4회	병자호란	임경업	
7			정봉수	
8			유림	
9			어유소	
10	3회	여진 정벌	허종	
11			이종생	
12			변협	
13		임진왜란	이정암	
14			김덕령	
15			김여물	
16			심하 파병	김응하

위의 표⑤에서 알 수 있듯이, 5종~4종의 문헌에서 명장으로 수록된 8명의 인물들, 즉 최윤덕·이순신·권율·곽재우·정충신·임경업·정봉수·유림 등은 모두 조선 중기에 치러진 국가 단위의 총력전이었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서 활약한 승전의 지휘관들이었다. 이순신·곽재우·권율은 잘 아는 바대로 임진왜란의 명장들이고, 정충신·정봉수·임경업·유림은 정묘호란 및 병자호란에서 승전하거나 守成에 성공했던 명장들이다.

다만, 최윤덕은 대체로 세종대 4군 개척의 지휘관으로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최윤덕은 대마도 정벌의 실질적인 작전 구상자였고, 세종대 도성 및 북방·하삼도의 축성 사업을 주도하며 ‘축성대감’으로 불렸던 出將入相의 명장이었다.⁴⁰⁾ 그 결과 조선 전기에 文廟에 대응하여 武廟의

40) 최윤덕의 생애 및 활동과 관련한 기본적인 이해로는 다음의 두 글이 참조된다.

설치를 주장했던⁴¹⁾ 일련의 논의과정에서 동 시기의 河敬復⁴²⁾과 더불어 1차 제향 인물로 선정되고 있던 사실⁴³⁾을 고려하면, 조선 전기의 무장으로 유일하게 선정된 까닭을 짐작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3종의 문헌에 수록되고 있던 명장들은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보다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국지적 전쟁이었던 여진정벌이나 을묘왜변·심하파병 등에서 활약했던 인물들임을 알 수 있다. 즉 어유소·이종생·허중 등 3명은 세조~성종대에 여진 정벌을 이끈 지휘관들이었고, 변협은 을묘왜변 격퇴, 김응하는 광해군대 심하파병에서 분전순사한 지휘관이었다. 또한 임진왜란과 관련된 지휘관들인 이정암·김덕령·김여물 등 3명은 이순신·권율·곽재우와는 달리 일정 기간·일정 지역에서 활약한 의병장이거나 지휘관이었다. 즉, 이들은 5종의 문헌에서 모두 선정된 명장들과는 전공·군공의 차원에서 뚜렷한 층차를 확인할 수 있는 인물 구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5종~4종의 문헌에서 명장으로 선정된 인물들과 3종의 문헌에서 수록되고 있던 인물들 사이에는 위의 표⑤에서 볼 수 있듯이, 전쟁·전투의 규모나 전공·군공의 측면에서 일정한 층차가 확인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대나 당색의 제한을 초월하여 적용될 수 있는 명장 선정의 객관적 기준은 전공·군공의 대소 및 관련

① 박동백, 「임곡 최윤덕」, 『한국인의 재발견(7)』, 2000, 문화관광부.

② 전호수, 「정렬공 축성대감 최윤덕」, 『한국 군사인물연구 - 조선편 I -』, 37~55쪽, 20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1) 대표적 인물로는 訥齋 梁誠之를 들 수 있다.

42) 본관은 진주, 시호는 襄靖으로 세종대 전반에 15년간이나 북방의 국경수비를 담당하였고, 판중추원사로서 『癸丑陣說』의 편찬을 총괄하는 등 건국 초기 국가의 武備 확립에 많은 공로를 세워 최윤덕과 함께 명장의 반열에 올랐던 무장이다. 따라서 추후 재조명이 필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43) 『세종실록』 13년 3월 17일 박아생의 상소와 『세조실록』 2년 3월 28일 양성지의 상소가 참조된다.

전쟁·전투의 규모와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증차는 수록문헌수의 다과, 즉 수록 빈도에 따라서는 반드시 적용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3종의 문헌에서 명장으로 선정된 인물들의 전공·군공에 대해 분석해보면, 그 사이에서도 일정한 증차를 확인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3종의 문헌에서 명장으로 수록된 8명 가운데 서인계의 명장전인 『해동명신록』에 수록된 이후 소론계의 명장전인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에서도 연속적으로 선정되고 있던 어유소·이종생·이정암·김덕령·김응하 등 5명은 그 전공이 뚜렷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어유소와 이종생은 여진 정벌, 이정암·김덕령은 임진왜란에서의 전공 및 군공, 그리고 김응하는 심하 파병에서의 奮戰殉死로 잘 알려진 명장들이다. 반면에 서인계의 문헌인 『해동명신록』과 『문헌편고』·『전고대방』에만 수록된 허중·변협·김여물 등 3명은 전공·군공이 뚜렷하지 않거나 또 다른 측면에서 명장의 반열에 올랐던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허중은 세조·성종대의 탁월한 군사지휘관이었지만 본래 문신으로 전공보다는 군공의 측면, 즉 최고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이 주목되었던 듯하다.⁴⁴⁾ 변협과 김여물은 모두 명종·선조대의 宿將이었지만, 그 명성은 다분히 신립의 탄금대 패전에 따른 반성적 효과에 따른 측면이 작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변협과 김여물은 後代의 史書에서 그들 개인의 전공이나 군공보다는 신립과 대비되는 품성이나 작전을 구사했던 측면이 주로 기술되고 있기 때문이다.

변협은 신립의 패기만만하지만 오만하고 경솔한 처신과 대비되는 숙장이었다는 측면에서,⁴⁵⁾ 김여물의 경우는 신립의 탄금대 배수진을

44) 김도련 외 번역, 앞 책, 271~275쪽 참조.

45) 김도련 외 번역, 앞 책, 545~546쪽 참조.

반대하고 조령 방어를 주장하였던 사실⁴⁶⁾이 그들에 대한 이해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렇듯 자신의 뚜렷한 전공에 근거하기보다는 당대인들에 의한 기억의 효과에 의거하여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기억의 속성상 시대가 지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그 지속성을 기대하기도 어렵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해동명장전』 단계에 이르면 기억의 효과가 상실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듯 명장 선정의 또 다른 기준으로 전공·군공의 여부와는 또 다른 요소, 특히 수록 빈도가 낮은 인물일수록 ‘기억의 효과’와 같은 요소가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과 논의가 갖는 한계점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허중·변협·김여물 등 3명의 경우와는 정반대로 단지 하나의 문헌에만 수록되었거나 아예 수록되지 못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큰 전공·군공을 쌓은 경우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해동명장전』·『대동장고』의 두 문헌에서만 수록하고 있는 晉州大捷과 北關大捷의 주역이었던 金時敏과 鄭文孚라든가, 宣武2等功臣이었지만 『해동명신록』에서조차 수록되지 않은 영천의병장 權應洙 등의 전공은 결코 위 표^④와 표^⑤의 3종의 문헌에서 명장으로 선정된 인물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⁴⁷⁾ 다시 말하면, 5종~4종의 문헌에서 모두 명장으로 수록되고 있는 최윤덕·이순신 등 8명 이외에는 그 전공이나 군공 등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해동명장전』을 비롯하여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다섯 종류의 문헌에서 보여주는 명장 선정도 시대의식의 반영으로서 하나의 사례에 불과할 수 있음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46) 김도련 외 번역, 앞 책, 430~431쪽 참조.

47) 임진왜란 관련 인물들에 대한 연구사 정리로는 ‘이장희, 2004, 「임란중 인물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韓國人物史研究』 창간호, 한국인물사연구소가 참조된다.

측면에서 위 5종의 문헌에서 두 번 이하, 즉 두 번 및 한 번밖에 수록되지 않은 인물들에 대해서도 군사사적 관점에서는 모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문제는 본고의 주제와는 다른 별도의 논의에 해당하므로, 편의상 그 명단만을 제시해 보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이에 해당 인물을 총괄하여 제시해 보면, 다음의 표⑥과 같다.

【표⑥ 두 종류 문헌 이하 수록 명장 총괄표】

순번	인 명	해동명신전 (1651)	해동명장전 (1794)	대동장고 (1817경)	문헌편고 (1923)	전고대방 (1924)	수 록 문헌수
1	이지란李之蘭		○	○			2
2	이종무李從茂	○					1
3	이덕량李德良	○					1
4	유응부俞應孚	○					1
5	이준李浚				○	○	2
6	박원종朴元宗	○					1
7	장언량張彦良	○					1
8	우맹선禹孟善	○					1
9	황형黃衡				○	○	2
10	신립申砮				○	○	2
11	김시민金時敏		○	○			2
12	원호元豪	○					1
13	신의申翥	○					1
14	유극량劉克良	○					1
15	휴정休靜		○	○			2
16	유정惟政		○	○			2
17	영규靈圭		○	○			2
18	황진黃進	○	○				2
19	정기룡鄭起龍		○	○			2
20	임중량林仲樑		○	○			2

21	김충선金忠善				○		1
22	최진립崔震立	○					1
23	김응해金應海		○				1
24	김경서金景瑞				○	○	2
25	정문부鄭文孚		○	○			2
26	이서李曙	○					1
27	신경진申景禎	○					1
28	심충沈摠				○	○	1
29	김양언金良彦	○					1
30	이희건李希建	○					1
31	유형柳珩	○	○				2
32	이완李浣				○	○	2
33	신류申瀏				○	○	2
소 계		16명	11명	8명	8명	7명	

위의 표⑥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종류 이하의 문헌에 수록된 명장은 모두 33명으로 집계됨을 알 수 있다. 전체 수록 인원 49명과 대비하면, 그 비중은 무려 73%에 해당한다. 두 문헌에서 수록된 인물은 이지란·이준·신립·황형·김시민·휴정·유정·영규·황진·정기룡·임중량·김경서·정문부·유형·이완·신류 등 16명이고, 하나의 문헌에서만 수록하고 있는 인물은 이종무·이덕량·유응부·박원중·장언량·우맹선·원호·신익·유극량·김충선·최진립·김응해·이서·신경진·심충·김양언·이희건 등 17명이다.

이들 가운데 2종의 문헌에서 수록하고 있는 인물로서 신립·김시민·휴정·유정·영규·정문부·이완 등은 4종의 문헌에 수록된 정봉수나 유림의 경우보다도 상대적인 측면이 없지 않지만, 이름이 더 잘 알려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번밖에 수록되지 않은 인물 중에는 세종대 대마도 정벌의 주역이라고 알고 있는 ‘이종무’가 포함되고 있는 것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듯하다. 이렇듯 두 번 이하로

수록된 인물 중에서도, 익히 그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인물도 적지 않음이 확인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앞서 『해동명장전』을 비롯하여 5종의 고문헌에서 보여주는 명장 선정도 하나의 시대의식의 반영으로서 역사적 사례에 불과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 활용도 전공·군공 등에 대한 엄격한 재검토와 함께 타 문헌에서 수록 여부 등에 다양한 조사를 통해 일정하게 층차적·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오늘날의 관점을 반영하여 전쟁 영웅만이 아니라, 군사전략가나 군사과학기술자 등을 포함하여 명장 또는 군사 영웅을 논의한다면,⁴⁸⁾ 위 문헌들이 갖는 가치는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전쟁사·군사사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에 바탕하여 조선시대의 명장을 선정하는 문제는 오늘날의 군사사 연구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4. 맺음말

이상으로, 현전하는 5종의 명장전 또는 명장록을 포함하고 있는 인물지, 즉 이미 잘 알려진 『해동명장전』을 비롯하여 『해동명신록』·『대동장고』·『문헌편고』·『진고대방』 등에 수록된 조선시대 名將을 상호 비교 검토하여, 오늘날 명장 선정의 객관적 기준 내지 객관적 근거 자료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위 5종의 문헌의 편찬시기는 『해동명신록』이 1651년, 『해동명장전』이 1794년, 『대동장고』는 1821년경이었고, 『문헌편고』는 1923년,

48) 전호수, 2011, 앞 책, ‘책머리에’ 참조.

『전고대방』은 1924년의 순서였다. 각각의 편찬자는 김육·홍양호·홍경모·이장훈·강효석으로, 모두 당대의 고위관료이자 석학이거나 근대에 언론출판인으로 활동한 인물들이었다. 또 각개 문헌의 수록 인물은 29명·24명·21명·19명·18명으로, 중복 인물을 제외하면 모두 49명이었다.

위 5종의 문헌에서 선정된 명장들은 시간적 범위상으로는 건국 이후부터 효종대 나선파병까지 활약한 인물들이었다. 후대의 문헌으로 내려올수록 수록 인원이 축소되는 것과 함께 각각의 인물 구성에서는 무려 50~70%에 이르는 커다란 편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위 다섯 문헌의 인물 구성 및 편찬자의 성향 등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두 계통의 문헌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즉, 『해동명신록』·『문헌편고』·『전고대방』을 西人-老論계열의 명장전으로, 반면에 『해동명장전』·『대동장고』를 少論-南人계열의 명장전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각각 『문헌편고』와 『전고대방』, 그리고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의 수록 인물이 사실상 일치하였는데, 전자의 경우는 『전고대방』에서 서인-노론계열의 黨派의 입장을 반영하는 논리인 ‘十二士禍錄’을 수록하고 있는 점, 후자의 경우는 홍양호·홍경모가 祖孫관계로서 정조-순조대 소론세력을 대표하는 고위관료이자 이데올로그였기 때문이다.

또한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에 수록된 휴정·유정·영규 등의 義僧將 3명을 『해동명신록』·『문헌편고』·『전고대방』에서 전혀 수록하지 않고 있던 점을 서인-노론계열의 守朱子學的 배타성·교조성의 반영으로 해석하여 보았다. 『해동명장전』과 『대동장고』에서 위 3명의 의승장을 새롭게 수록하고 있던 점을 소론-남인계열이 취했던 脫性理學的 개방성, 즉 양명학·서학·북학의 수용 및 불교와의 친연성으로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다섯 문헌의 인물 구성에서 나타나는 50~70%에 이르는

커다란 편차에도 불구하고, 인물 선정의 기준은 당색적·학문적 성향의 차이보다는 시대의식의 차이가 보다 규정적임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색이 다른 문헌인 『해동명신록』과 『해동명장전』·『대동장고』의 수록 인물의 편차보다 당색이 동일한 『해동명신록』과 『문헌편고』·『전고대방』의 인물 구성이 보다 큰 편차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전자의 편차가 50%였던 것에 비하여, 후자의 편차는 70%를 상회하였다.

따라서 그 인물 구성은 기본적으로 시대의식의 차이를 바탕으로 하되, 이차적으로 당색별 차이를 반영하고 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특성은 문헌별 개별 인물 수록의 연속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즉, 4종~3종의 문헌에 수록된 인물 11명을 분석해본 결과 당색이 서로 대치되는 서인계의 『해동명신록』과 소론계의 『해동명장전』·『대동장고』에 연속하여 수록된 인물이 임경업·정봉수·유림·어유소·이종생·이정암·김덕령·김응하 등 8명이었던 반면에, 당색이 같은 서인-노론계의 문헌인 『해동명신록』과 『문헌편고』·『전고대방』에 연속하여 수록된 인물은 허중·변협·김여물 등 3명에 불과하였다.

한편 각각의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한 인물 선정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듯이, 전공·군공의 대소 및 전쟁·전투의 규모와 연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5종의 문헌에 모두 수록된 최윤덕·이순신·곽재우·권율·정충신 등 5명과 4종의 문헌에서 선정된 임경업·정봉수·유림 등 3명은 모두 임진왜란과 정묘·병자호란의 극복과정에서 뛰어난 전공을 쌓았던 명장들이었다.

이에 비해 3종의 문헌에서 수록되고 있던 어유소·이종생·허중·변협·김여물·이정암·김덕령·김응하 등의 8명은 여진정벌이나 을묘왜변 등 국지적 전쟁, 또는 임진왜란에서도 일정한 지역·기간에만 활약했던 인물들이었다. 또한 2종 이하의 문헌에 수록된 인물들의

문헌별 편차는 무려 50~70%에 이르는 커다란 수준이었으므로, 인물 선정의 객관성 내지 공통성을 검토하는 것은 유의미한 논의가 될 수 없었다. 이를테면, 전공·군공이 뚜렷하고 관련된 전쟁·전투의 규모가 대규모일수록 시대나 정파에 구애되지 않고 명장으로 선정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같이 본고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해동명장전』 외에 『해동명신록』·『대동장고』·『문헌편고』·『전고대방』 등의 명장전 또는 명장록으로서의 가치를 새롭게 확인하고, 그 상호 비교 분석을 통해 조선시대의 명장 선정에 적용된 객관적 기준 내지 오늘날 명장 선정의 객관적 근거 자료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공·군공의 대소 및 관련 전쟁·전투의 규모와 밀접한 연관성이라든가 당색·정파보다는 시대의식의 공유가 갖는 규정성 등을 검출하는 등 유용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반면에, 『해동명장전』을 비롯하여 5종의 고문헌에서 보여주는 명장 선정도 하나의 시대의식의 반영으로서 역사적 사례에 불과할 수 있음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오늘날의 관점을 반영하여 전쟁 영웅만이 아니라, 군사전략가나 군사과학기술자 등을 포함하여 명장 또는 군사 영웅을 논의한다면, 위 5종의 문헌들이 갖는 가치는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음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전쟁사·군사사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에 바탕하여 조선시대 명장을 선정하거나 군사인물사를 정립하는 문제는 오늘날의 군사사 연구자들의 몫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원고투고일: 2015.1.6, 심사수정일: 2015.2.23, 게재확정일: 2015.2.24)

주제어 : 조선시대 명장, 명장 선정의 객관적·보편적 기준 검출, 『해동명장전』, 『해동명신록』, 『대동장고』, 『문헌편고』, 『전고대방』, 서인-노론계열의 명장전, 소론-남인계열의 명장전

<ABSTRACT>

Renowned generals of Chosun era in old literatures

Jeon, Ho-soo

The following study aims to review the use possibility of old literatures, 『Haedong- myeongsinrok』·『Haedongmyeongjangjeon』·『Daedongjanggo』·『Munheonpyeongo』·『Jeongodaebang』 in which renowned generals on the five books are compared each other and will quest for it's function as objective data for general selection of the day.

The editors and editorial time of the five books are as follows : 『Haedongmyeongsinrok』(Kim Yuk, 1651)·『Haedongmyeongjangjeon』(Hong Yangho, 1794)·『Daedongjanggo』(Hong Gyeongmo, ca.1821)·『Munheonpyeongo』(Lee Janghun, 1923)·『Jeongodaebang』(Kang Hyoseok, 1924), each book contains respectively 29·24·21·19·18 figures and the number of the figures actually is 49, as some are repeatedly mentioned in the books.

The people, whom all five books include, are Choe Yundeok·Yi Sunsun·Gwon Yul·Gwak Jaeu·Jeong Chungsin, and Yim Gyeongjeop·Jeong Bongsu·Yu Rim can be founded in 4 books, whereas Eo Yuso·Heo Jong·Yi Jongsang·Byeon Hyeop·Kim Yeomyul·Yi Jeongam·Kim Deokryeong·kim Eungha are mentioned in 3 books, 18 figures including Yi Jiran can be founded in 2 literatures, while 17 person like Yi Jongmu are to read in just 1 book.

It shows that a general, who distinguished himself in the war between Chosun-Japan war(1592~1598)·Chosun-China war(1627·1636) and made wide fame, get mentioned more, as the commander, who fought in a small and regional battle, described relatively less.

The five books are to divide in two part according to editor's disposition and composition of figure. 『Haedongmyeongsinrok』·『Munheonpyeongo』·『jeongodaebang』 can be categorized as Seoin-Noron group(political faction), while 『Haedongmyeongi-angjeon』·『Daedongjanggo』 as Soron-Namin group(political faction).

Two categories as per political coloring is to verify in 4 points :

a) 『Munheonpyeongo』·『Jeongodaebang』 handle the almost same

figures, as same are 『Haedongmyeongjangjeon』, 『Daedongjanggo』.

b) 『Jeongodaebang』, which reflect the political position of Seoin-Noron, includes an article about 12 literati purges(sahwa).

c) Hong Yangho, Hong Gyeongmo, the editors of 『Haedongmyeongjangjeon』, 『Daedong-gjanggo』 are grandfather and grandson and as high level government officials they were representative ideologue of Soron in Jeongjo · Sunjo periods.

d) 『Haedongmyeongjangjeon』·『Daedongjanggo』 handle Hyujeong·Ujeong·Yeongkyu, who as buddhist monk fought against japan, while they are not mentioned in 『Haedongmyeongsinrok』·『Munheonpyeongo』·『Jeongodaebang』 probably reflecting the political group of Noron, which carry for the dogmatic and exclusive nature of Cheng-Zhu school(Neo-Confucianism).

It is interesting to find that the books – with the same political faction-like 『Haedongmyeongsinrok』·『Munheonpyeongo』·『Jeongodaebang』 are more deviable in figure composition(70% in deviation) than the books with the different political direction(50%). Awareness of times as the criteria of the figure selection plays more decisive role than political and academic tendency.

To conclude, it does not make any meaning to study the similarity and objectivity of the figure list in 5 books because of the 50~70% deviation in person composition. It confirms that the literatures about renowned generals of all time are historical text reflecting the spirit of the times. It is the task of the military historian of the day to select the renowned generals in Chosun era based on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discuss.

Key words : renowned generals in Joseon era, objectivity & universality detection for general selection, 『Haedongmyeongsinrok』, 『Haedongmyeongjangjeon』, 『Daedongjanggo』, 『Munheonpyeongo』, 『Jeongodaebang』 Seoin-Noron factional renowned generals, Soron-Namin factional renowned generals